

## 어설픈 인생

이른 새벽에 “변소 푸소오—”하는 소리에 잠을 깬다. 서울의 한 북판에서 밤에는 찹쌀떡 장수의 구슬픈 소리에 잠들고, 새벽이면 변소 치라는 고향 소리에 잠을 깨야 하니 하고 혀를 차보았자 별도리 없는 노릇이다. <한국 근대화>를 뺏치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주섬주섬 옷을 갈아 입고서 조간을 들여다 본다. 대문짝만한 제목이 담긴 기사 내용들은 한결 같이 우리 주변의 답답한 사정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심심풀이로 보던 버릇으로 광고난도 훑어본다. 꾀직한 테두리 속에 힘든 한자로 짝 찬 부고가 봄 가을에는 유난히 많이 실리는 것을 보고 아마도 저 세상에도 봄 가을에는 꽤 봄비리라고 생각된다. 사십 고개를 넘어서면서부터 괜히 조간에 나오는 부고에 마음이 끌리곤 한다.

어떤 작가가 “문고판 인생”이라는 책 제목을 붙여서 신문에 광고를 낸 것을 본 기억이 있다. 문고판 인생보다 더 협소하고 기막히는 인생이 아마도 1단 5행의 인생인 것 같다. 진학, 졸업기에는 으레 바둑판처럼 광고난을 매우는 기사는 가정 교사 구직 광고이다. 고리타분한 단간 하숙방 안에서, 찬란한 (?) 미래의 꿈을 썩어 가면서 가정 교사 자리를 구하는 것이 이 1단 5행이 그대로 반영시켜 주는 것 같다. 이 1단 5행의 뒤에도 이 정도로 키워준 부모들의 한숨과 눈물어린 사연이 영켜 있으리라고 짐작해 본다. 국민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치열한 경쟁을 치루어 가는 동안에 술한 고생을 겪고 나서 구직 광고를 내는 저들의 사정에 서글퍼진다. 단간 하

숙방이 그대로 1단 5행의 삶을 담고 있다고나 할까? 모든 것이 몹시 어설피게 보인다. 조국 근대화를 외치면서 각박한 생존 경쟁 속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즐먹는 것은 이러한 어설피미라고 하겠다. 해마다 가지가지의 비극과 미담을 빚어내는 한국의 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러한 어설피 교육이 지니는 모순 당착의 농도를 더 질게 해준다. 자기 나라의 땅을 파헤치느니 보다 남의 나라의 탄광 갱도 속에 가서 땀 흘리기를 자진하는 교육 받은 사람들, 또 이렇게 자기 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남의 나라 품팔이로 보내놓고 국빈으로 찾아가서 의젓하게 만나고 오는 분들, 모두가 어쩐지 어설피미 것만 같다.

아침 햇살과 더불어 스며드는 영하의 추위가 등골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자 나는 조건을 놓았다. 이 추위에 어설피 인생을 뒤에 남기고 주의 품에 안겼을 친구 한 사람의 영결식을 생각하면서 집을 나섰다.